



→ 보도자료

• **▶** 보도자료

제 목	RFID기술 활용으로 항공수입화물 통관 더욱 빨라진다.	등록일	2009-06-03		
작성자	박상철 사무관	담당부서	정보기획과	조회수	103

RFID기술 활용으로 항공수입화물 통관 더욱 빨라진다.

▶ 관세청(청장 허용석)은 보다 빠른 통관처리를 위하여 항공수입화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업무를 자동화하는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 구축을 6.3일부터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.

※ RFID :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서 전자 칩에 식별정보를 입력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기술

◎ 현재는 B/L별 반출입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반출입상황을 수작업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, 앞으로는 RFID 리더기에 의해 자동처리되므로 반출입신고가 더욱 빨라지고 정확하게 된다.

◎ 또한 화물에 부착된 전자태그는 보세운송 및 내륙지 보세구역 반출입신고에 활용되며, 수입업체 물류관리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기업의 수출입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게 된다.

▶ 관세청은 지난해 이미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RFID기술의 신뢰성과 활용 효과성을 검증하였다.

◎ 아시아나 항공화물터미널 등 6개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RFID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세화물 반출입신고업무가 자동화되고 입항에서부터 반입신고까지 시간이 30%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.

◎ 또한, 보세운송발도착, 보세구역반출입, 보세화물재고 등 화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입수하게 됨으로써 보세화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.

▶ 관세청은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항공화물 전체에 대해 RFID 기반의 항공수입화물통관체제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.

◎ 대한항공 등 7개 항공화물터미널에 RFID 기반 시스템을 구축.운영함으로써 항공화물의 91%를 전자태그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.

◎ 또한 해외 수출지에서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물류업체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항공화물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.

▶ 관세청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현행 항공수입화물 처리단계 10단계 중 6단계가 자동처리되고, 처리시간이 30% 단축되어 연간 1,400억원의 물류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▶ 향후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공급망관리(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)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세관 및 민간과 물류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항공수출화물, 해상화물에도 RFID, CSD(Container Security Device) 등의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(World Best Customs)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.